

### 동진상선

#### SITC와 스페이스 교환 합의

동진상선(대표 오일환)은 최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부산~상하이간 컨테이너 서비스 향로에 SITC Container Lines사와 스페이스 교환에 합의했다.

SITC Container Lines Co., Ltd.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8월부터 스페이스 교환이 시작되며 이번 스페이스 교환으로 SITC는 처음으로 울산항에 기항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항지는 상하이, 부산, 울산 및 상하이이다.

한편 동진상선은 SITC사가 운항하는 청도~부산 항로의 스페이스를 이용하게 되며 양사는 주당 30TEU 정도를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세양선박

#### 상반기 매출액 126% 증가

세양선박(대표 임병석)은 올 상반기 매출 1034억원과 영업이익 121억원, 순익 176억원을 기록,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년 상반기대비 매출액은 126%, 영업이익은 464%, 순이익은 526%나 대폭 증가했다.

세양선박은 실적 호조에 대해 벌크선 운임 고공행진과 대형선 위주로 선대확대 및 매출비중 20%대인 원유수송사업 호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양선박은 하반기에도 시황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올 목표치인 매출 2000억원, 영업이익 2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세양선박의 모회사인 씨브라운티해운은 올 상반기 매출 1546억원, 경이익 278억원을 기록했다.

### 씨브라운티해운

#### 계열사 등 정기승진인사

씨브라운티그룹은 7월 1일부로 씨브라운티해운, 세양선박, 케이씨라인 등 계열사 육상직 임직원 16명에 대한 하반기 정기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씨브라운티해운의 김정균(보험법제팀장) 이사대우가 이사로, 이석현(영업1팀장)부장은 이사대우로 각각 승진됐다.

[씨브라운티해운] △이사 김정균(보험법제팀장) △이사대우 이석현 부장(영업 1팀장) △차장 김길수, 유이형, 이정우, 최강문 △과장 김형조, 김정환, 황장현

[세양선박] △부장 정필석(회계팀장) △차장 조상길(홍보IR팀), 이상욱( ) △과장 배성훈

[케이씨라인] △이사 한영환(공무담당임원) △부장 임형국(해무팀장) △과장 고대호

### SK해운

#### 신용등급 A3 평가

SK해운(대표 이정화)은 최근 한국신용정보에 의해 고정거래처와의 장기운송계약에 기반한 안정적인 영업수익성과 업황호조, 신조인수에 따른 영업실적 개선, 계열관련 대규모 대손 및 법인세 추징 등에 따른 단기 자금부담 해소 추이들을 고려해 단기신용등급 A3로 평가받았다.

매출기준 국내 4위의 국적선사인 SK해운은 계

열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고정거래처와 장기원가 보상방식으로 유조선과 LNG선, LPG선 등의 탱커 운송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2003년 기준 매출비중은 유조선 34.4%, LNG선 및 LPG선 24.5%, 석유제품선 10%, 벌크선 14.6%, 해상 급유 14.6%, 기타 1.7%이다.

한국신용정보는 SK해운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저위험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즉 벌크선을 비롯한 스폿 영업실적에 따라 영업수익성이 다소 변동되고 있으나 보유선박 24척 중 20척이 고정거래처와의 장기원가보상 방식으로 운항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성을 시현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위험도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2004년 6월말 현재 SK해운은 원화기준으로 1조 3500억원에 달하는 외화표시 금융리스 부채를 부담하고 있으나, 금융리스 부채로 도입된 선박의 대부분이 금리와 유가 등의 변동이 운임에 보상되는 원가보상 방식의 장기운송계약으로 체결·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 기준의 수익성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의 연간 외화 유입, 유출 규모가 비슷해 실질적인 환위험 노출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안진해운

### 높이조절 가능 컨테이너 상용화

한진해운(대표 최원표)은 7월 28일 업계 최초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컨테이너(수퍼랙 컨테이너, SUPERRACK CONTAINER)를 8월부터 본격 상용화해 화물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더욱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수퍼랙 컨테이너(SUPERRACK CONTAINER)란 건설중장비, 공작기계 등 높이나 폭이 큰 부정형

의 대형 화물을 컨테이너선박에 선적이 가능토록 일반 컨테이너보다 1.5m 높은 3.5m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신개발 특수 컨테이너이다.

한진해운은 이 장비 6대를 지난 2000년부터 시험 사용한 결과 효용성이 크다고 판단, 오는 8월초부터 300대를 도입해 한국과 중국을 시작으로 세계 전지역으로 사용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높이 및 부피가 큰 비규격화 화물은 플랫폼 컨테이너(Flat Rack, 윗·옆면이 없고 바닥과 기둥만 있는 컨테이너)를 이용 선적해 왔으나, 선박마다 선적할 수 있는 공간(홀드 내 상단 및 갑판 일부)이 제한돼 있고, 선적 및 하역과 컨테이너 위에 추가 선적을 할 수 없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신장비는 높낮이를 조정해 화물을 규격화된 컨테이너 화물화 함으로써, 컨테이너 위에 추가 적재가 가능하여 다량의 화물을 선적할 수 있고, 선적 및 하역시간이 대폭 단축되고(개당 60분에서 10분으로) 환적 운송 및 육상 운송도 더욱 용이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비규격 화물 운송이 가능하게 됐다.

또 이 장비는 국내 중소 기업인 수퍼랙 쉬핑사(대표 김점규)가 개발해 전세계 보급을 추진 중인데, 이번 한진해운의 해운업계 최초로 본격 상용화를 계기로, 외국 유력 선사들도 연이어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 시장 개척에 물꼬를 터 주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Dry) 컨테이너, 냉동(Reefer) 컨테이너, 플랫랙 컨테이너 등에 추가해 수퍼랙 컨테이너를 운영함으로써 화물 별로 더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번 신장비 도입으로 국내 업체는 물론 세계 각 지역의 중장비 수출입 업체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아시아 및 구주 지역간 화물 운송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한국조선공업협회

#### 사무실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전

한국조선공업협회(조선기술연구조합)는 7월 25일 기존 종로구 운니동 사무실을 정리하고,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랜드마크타워 18층으로 이전했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7-36번지 랜드마크타워 18층

△전화 : 02-2112-8181, FAX : 02-2112-8182

### 한국선급

#### 뉴욕사무소 이전

한국선급(회장 이갑숙)은 8월 1일부로 미국 뉴욕사무소를 이전했다. 이전된 사무소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주소 : 51 Burlington Street, Norwood, NJ 07648, USA

△전화번호 : +1-201-784-8886, FAX : +1-

201-784-8866

△휴대전화 : +1-201-446-2433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 마산지부 사무실이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박재영)이 7월 23일자로 마산지부 사무실 및 방제창고, 해양전시관 등을 종전의 경상남도 마산시 월포동2-6(돌섬 여객선터미널 건물)에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신축 건물로 이전했다. 방제조합 마산지부는 7월 23일 박재영 이사장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관계자 60여 명을 초청해 현판식을 거행했다.

한편 사무실 이전에 따른 주소, 전화 및 팩스 번호는 종전과 동일하다.

△주소 : 경상남도 마산시 월포동 2-6

△전화 : 055-223-8833, FAX : 055-244-4229

### 해운조합

#### 신임회장에 (주)서경 박홍진 사장 선출

한국해운조합은 8월 2일 열린 제1회 임시총회에서 (주)서경 대표이사 박홍진씨를 제11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4일 밝혔다. 박홍진 신임회장의 임기는 오는 2007년 8월 15일까지다.

이번에 선출된 박홍진 회장은 73년 단국대 경제학과를 나와 부경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1995년 서경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현재 거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으며, 85년부터 현재까지 해운조합 대의원(11대~16대)과 제10대 회장 직을 역임했다.